



광주예술의전당이 2019년부터 선보여 온 '광주상설공연'이 공연보상비 미편성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공연마루 전경. <광주상설 제공>



지난 3월 대면공연 1000회를 맞아 펼쳐진 新 미당극 '뛰는 토산생 위에 나는 별주부'.

기로에 선 '광주상설공연'

시립·민간예술단체가 6년간 1000여회 이상 대면 공연 내년 예산 운영비만 확정...공연비 책정 안돼 존속 불투명

6년여간 지역민에게 1000회 넘는 무료관람 기회를 제공해 온 '광주상설공연'이 폐지될 전망이다. 광주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공연보상비 없이 운영비만 편성하면서 나온 결과다. 향후 추경을 통해 공연보상비를 확보해야 상설공연을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19년 2월 시립장극단 시범 공연으로 시작한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상설공연은 지역 민간국악예술 10개 단체를 공모하면서 본격화됐다. 실연 횟수도 총 132회, 관람 인원 1만6234명·매주 토요일 공연)에 달했으며 1회 평균 관객수 123명을 동원할 정도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규모를 키워 공연 횟수를 5회 늘렸다. 팬데믹으로 집체활동·공연이 제한됐던 상황에도 온·오프라인 공연을 지속하면서 대면 총 116회, 온라인 92회(총 관객수 5110명)를 선보였다. 이후 21년 총 관객수 1만171명(공연 222회), 22년 1만7897명(256회)으로 회복세에 올랐으며 23년 공연회차(총 209회)를 주4회로 줄였음에도 관객수 1만9056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주말 2회 공연으로 변경해 총 107회 공연했으며 관객수는 1만3892명(1회 평균 130여명)에 달했다. 6년간 총 관객수는 8만2360여명으로 지난 3월 대면공연 1000회까지 달성했다.

사업비 또한 13억9600만원(2019년)으로 시작

해 17억3000만원(2020), 22억9800만원(2021), 26억9500만원(2022)으로 꾸준히 증액됐다. 그러다 2023년부터 18억100만원, 올해 11억1400만원으로 급감했다.

문제는 상설공연팀에 따르면 내년 사업비로 운영비 9900만 원(홍보물 제작, 기획 등 용도)만 책정되면서 사실상 상설공연 존속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출연진에게 지급하는 '공연 보상비' 없이 본무대 제작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책 마련도 없는 상설공연 폐지는 지역민 문화 향유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공연기획 종사자 A씨는 "안 그래도 전용 공연장이 부재해서 콘텐츠를 즐길 기회가 부족한 '공연 불모지 광주'인데, 상설공연마저 사라지면 예술가들이 설 자리가 축소될 것이다"며 "올해 평균 공연 횟수를 줄였지만 관객몰이에 진력하고 있던 공연이 폐지된다니 맥이 끊기는 기분이다"고 했다.

이와 "190억 여원을 들여 사직공원에 조성하는 상설공연장도 설계작에 대한 행정심판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그나마 있던 공연마저 대책 없이 사라진다면 '예향 광주'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설공연 폐지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상설공연에 출연한 적 있는 예술가 B씨는 "광주에 가면 꼭 봐야 할 국악공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역 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성대하게 시작했으나 독창적인 레퍼토리 부진, 과도한 재원으로 문화향유기회와 관객몰이를 확장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와 "대표 프로그램이 미흡한데다 전문 공연을 펼치기에 무대 공간 및 분장실, 음향효과 등이 열악했던 것이 상설공연의 현실이었다"면서 "연구·기획이 부진했던 점도 예산이 삭감된 이유 중 하나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설 공연장이었던 '광주공연마루'가 향후 어떻게 활용될 지도 이목을 끈다.

공연마루는 본래 2010년 개막한 광주세계음악포 시즌 내 '빛주제 영상관'으로 사용됐다. 행사 후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광주발전연구원 연구 용역을 거쳐 영구시설물로 존치하게 됐다. 이후 광주시가 '문화수도 예방광주' 이미지에 걸맞은 브랜드 상설공연장을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해 공연장으로 사용했던 것.

공연예술가 C씨는 "광주상설공연 지속이 어렵다면 향후 공연마루 활용 방안이라도 구체화됐으면 한다"며 "한 번의 무대 기회가 소중한 예술가들에겐 총 172석에 달하는 광주공연마루 무대 의미는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부금과 행정심사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상설공연과 공연마루가 탄생한 것인데 이렇게 협의 없이 사장되기에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큰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절망'에 대한 단상

화순 출신 임미리 시인 수필집 '펭귄 만나러 가자'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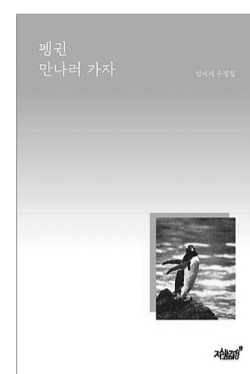
화순 출신 임미리 시인이 수필집 '펭귄 만나러 가자' (지식과 감성)를 펴냈다.

작품집에는 '옹이', '그리운 섬', '모과를 닮고 싶다', '우아한 거짓말' 등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끼고 사유한 약 50여 편의 글이 수록돼 있다.

수필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시인은 "사람은 경험하고 후회하고 깨닫는 시행착오를 통해 인생을 배운다고 하지만 삶은 가혹하다"며 "신은 나에게만 혹독한 경험을 주는 것은 아닌가 절망했으며 홀로 수없이 무등산을 오르며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발간 배경을 전했다.

부모님과 관련된 일화를 비롯해 여행을 통해 바라보는 삶,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과 단상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작품집에서 저자는 '절망'을 주제로 자신만의 사유를 풀어낸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만난 몽크의 '절규'를 떠올리며 고통이 엄습해오더라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



러면서 "시행착오는 끝이 없는 것이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흔들리더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읊조린다.

수필가 장미숙은 서평에서 "생애 닥쳐오는 모든 일은 기록에 의해서 생명을 얻는다"며 "자신의 내면과 대면하며 진정한 자아를 찾는 건 글쓰기에서 필수 조건이라 하겠다"고 평한다.

한편 임미리 시인은 광주대 문예창작학과 박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열린시학'으로 등단했다. 시집 '물고기자리', '엄마의 재봉틀' 등이 있으며 화순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악+새 장르...관객은 행복했네

연극·무용·전통예술 상연...문예위 기획공연 'ARKO PICK' 성료



종이꽃밭 두할망본풀이 공연 장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4년 나주시 빛가람동으로 자리를 옮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올해로 이전 10주년을 맞았다.

문예위가 이를 기념하는 기획공연 'ARKO PICK'을 최근 성료했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나주문예회관에서 펼쳐진 무료 공연.

이번 달에는 판소리야리드 놀이박스가 '종이꽃밭: 두할망본풀이'를 통해 관객을 만났다.

두할망본풀이는 제주무속신화를 각색한 판소리 드라마로 화려한 지화(전통종이꽃)발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판소리 1인극이다. 미용과 불안,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힌 두 아끼씨가 '사랑의 연대', '개인의 고립'에 대한 문제를 판소리와 국악기로 표현하는 내용.

실 관객은 "나주에서 접하기 어렵던 국악과

새로운 장르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기획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문학, 시각, 다원예술 등 기초예술을 지원하는 문예위는 그동안 기획한 공연예술 콘텐츠들 ARKO PICK에 담았다. 이들은 나주시와 협력해 연극 '여자만세', 무용극 '발레 피터팬'을 상연했으며 11월 연극 '그때도 오늘', 클래식 공연 '브람스&슈만', '갈라콘서트' 등을 무대화했다.

문예위 관계자는 "문예위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예술 콘텐츠를 나주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던 자리"라며 "앞으로도 나주문예회관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관람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 공연을 펼쳐 보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 내년 2월까지

청년 16만여명에 전시·공연 관람비 지원...전액 사용 이벤트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2024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 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관람일 기준) 연장한다고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세(2005년 출생자) 청년이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순 16

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 전시·공연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패스 발급은 지난달 마감됐으며, 내년 1월 24일까지 '청년문화예술패스 전액 사용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문예위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자 정보 및 이용 후기를 작성해 참가할 수 있다. 5건 이상 관람자 추천(3인)해 네이버페이 포인트쿠폰 10만 원권, 4건 이상(10명)에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5만 원권을 지급한다. 이외 CGV 모바일상품권(3만 원)은 20명, 배스킨라빈스 교환권(2만 원)은 50명, CU 편의점 모바일상품권(5000원)은 100명에게 증정한다. 구간별 참여 인원 미달 시 인원 조정.

지역별 공연·전시 정보는 청년문화예술패스 통합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최류빈 기자 rubi@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